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二十二面

花縣西南方 敗敵을猛追擊

【〇〇十七日發同盟】花縣附近을 攻擊中인 我〇〇部隊는 花縣一帶에 蠢動하던敵의 大部分을 殲滅한바 西南方에 敗走하는敵에 對하여는 增田、本田、高橋各部隊가 그退路를 遮斷하고 宮崎部隊는 追擊을 續行하야 十七日夕刻에는 三、四千의敵을 官窯北方地區에 包圍하야 殲滅中이다 現在까지 敵에게준 損害는 遺棄死體二百 餘이다

社說 行旅病者救療所問題

一

人口가 增加되고 交通이 頻繁해짐에 따라서 行旅病者 乃至 死亡者의 問題가 한 個의 社會問題로 일어남을 免치못하는것은 事實이다 아직 朝鮮서는 그들을 爲하야 施設해노흔 何等의 救護機關이 存在치 안타. 勿論 이때까지라고 行旅死亡者를 埋葬하야주지 안흔것이 아니요 또 그와가티 行旅病者를 救療치 안흔것이 아니로되 常設의 專門的 救護機關이 업는만큼 手續이 自然 遲延하게되고 恩賜救恤金의 利子와 若干의 地方費로써 겨우 辦用하고 잇는만큼 費用의 困難이 적지안타. 現下 朝鮮에잇서 救護施設을 要하는바 하나 둘이 아니요 또 그中의 急한바 行旅病者나 死亡者보다 더한 것도 적지안켓지마는 人道上으로 생각해서 이역시 적게볼 問題는 아니다. 거리우에 구으는 임자업는 屍體도 좀더 誠意를 다하야 무더 주어스면 하려니와 四顧無親한 行旅의 病者는 될수 잇는데까지 醫藥을 아끼지 말고 看護를 親切히해서 健快한 몸으로 再起되도록 하야주어야 할 것이다.

二

昭和二年度 新救護를 要한者 一、五〇七名이요 行旅死亡者四二七五名이던 것이 同七年에는 前者가二、一〇〇名 後者가 五五八八로 激增된 以後 同十年에 前者는 二、三三七名 後者는 四、九七五名 同十一年에 前者는 二、一九八名 後者는 五、五八八名으로 역시 增加의 趨向을 보이고 잇다. 設使 將來의 增加될 그 趨向을 暫間 더퍼노코라도 前後 合하야 이미 萬에 가깝다는 놀라운 人數가 아닌가. 그런데 새로 發表된 昭和十二年度의 統計로 드르면 行旅死亡者는 四、八〇五名으로 좀 減少해 젓슴에 對하야 行旅病者는 三、三五二名으로 또 한번 激增되고 잇다고 한다. 실상 이미 死亡한者의 處分問題보다도 病者의 救護가 더 큰 問題라 이 激增에 相應한 어떠한 對策을 講究해볼 必要는 업슬까. 아니 다시 한번 도리켜 생각할 때는 行旅死亡者도 急病乃至 特殊原因을 除한 以外의 大多數는 역시 行旅病者에 屬하얏슬 무리가 아닐까 한다. 萬一 救護機關이 잇서서 진작 그들의 몸우에 救護의 손길이 뻐처다고 한다면 死亡에까지 이르지 안 하얏슬찌 모른다.

三

어떠케 해서던지 적어도 各重要都市에만은 行旅病者의 專門救療所를 두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萬에 가까운 不幸한 人命을 좀더 救護코자라도 努力하여야 할것이다. 勿論 當局에서는 가장 먼저 豫算에 困難할 것이나 多少 無理를 해서라도 그러한 豫算을 세워 주지 안 해서는 안 되고 또 오직 當局만을 미들 것이 아니라 民間의 有志도 이런 方面의 慈善事業을 爲하야 誠意를 披瀝할수 잇지 안흘까 한다. 近來 朝鮮의 富裕한 階級에서 敎育事業에 投資을 만히 하게된 것은 勿論 반갑고 또 고마운 現象임에는 틀림이 업지마는 이미 當局에서 敎育擴充의 大方針을 세워 노코 着着 進行中에 잇스니 그들은 한번 다시 方向을 돌리어 다른 文化事業이나 乃至 上記와 가튼 救療事業으로 進出하는 것이 조흘 것이다.

支那의門戶開放問題
列國과個別折衝說
米國에 一大衝動
事實이면米政府는愼重考慮
國務當局談

【華盛頓十七日發同盟】日本政府가 全世界에 잇서서의 門戶開放問題와 關聯시켜 支那의 門戶開放問題에 關하야 歐米各國과 個別的으로 折衝할意思가잇다는旨를 述하엿다는 東京電報는 米國政界의 注目을 集中하고잇는바 國務省當局은 十七日 右 報道에 關하야 積極的意見의 表明을 避하고 다음과가티 말하엿다

日本政府가 門戶開放問題에 關하야 歐米列國과 個別的으로 折衝할意思가잇다는 東京電報는 一通信社의報道에 不過하므로 뭐라고말할수업스나 日本外務省이 實際로 그와가튼意思를 가젓다면 米國政府로서는 愼重히考慮할터이다

또 經濟方面에서는 同問題는 九個國條約關係國間에서 協議할問題인旨 非公式으로 意見을 披瀝하엿다 一方 이問題에 關하야 十七日의 紐育各新聞은 長文의 東京電報를 揭載하고 各紙가모두 相當히 크게 取扱하고잇는바 紐育의消息通에서는 右報道에關하야 大體다음과가튼 批評을 加하고잇다

日本의今回條件은 交涉을有利하게 展開케하려는 策略으로는 急所를찌른 確實히조흔點이다 但支那의門戶는 現在도半分은 解放되어잇스므로 完全한 門戶閉鎖라고는 할수업다 따라서 移民禁止法等과 交換條件을 使用하는것은 無理이다 또個別的交涉을 主張함에는 어떠한 明確한理由가잇서야할것이다 그러치안흔限 米國으로서는 從來의 關係로보아 英佛과의 共同步調를버리고 日本과 單獨으로 交涉하기는 困難하다고보인다

各省政務官決定
十八日臨時閣議서

【東京電話同盟】各省政務官은十八日 臨時閣議에서 左와如히決定하엿다

▲政務次官
外務省 淸水留三郞(民政)
內務省 漢那 憲和(民政)
大藏省 松村 光三(政友)
陸軍省 西村 茂生(政友)
海軍省 松田竹千代(民政)
司法省 倉元 要一(政友)
文部省 小柳 牧衛(民政)
農林省 松村 謙三(民政)
商工省 今井 健彦(政友)
遞信省 平川松太郞(民政)
鐵道省 工藤十三雄(政友)
拓務省 寺田 市正(政友)
厚生省 津崎 尙武(第一)

▲參與官
外務省 箸本 太吉(政友)
內務省 中井 一夫(政友)
大藏省 矢野庄太郞(民政)
陸軍省 中井川 浩(民政)
海軍省 中原 謹司(第一)
司法省 濱野徹太郞(民政)
文部省 野中 徹也(第一)
農林省 林 讓治(政友)
商工省 澤田 利吉(民政)
遞信省 上田 孝吉(政友)
鐵道省 靑木 亮貫(民政)
拓務省 後藤源九郞(第一)
厚生省 綾部健太郞(政友)

新政務官今日發令

【東京電話同盟】政務官決定의 臨時閣議는 十八日午後二時三十分부터開會、平沼首相以下各閣僚出席(木戶內相缺席)閣議에앞서 鹽野法相及 櫻內、前田兩政黨出身閣僚 田邊書記官長間에 協議決定한人物에 對하야 銓衡한 結果 別項과가티 決定하고 同三時四十分散會하엿다 그리고 十九日午前中에 發令 即日首相官邸에서 初面會를擧行할豫定이다

兵役法改正外 四法案提出決定

【東京電話同盟】政府는十八日左記五案을議會에 提出키로되엿다
一、貴族院
一、兵役法中改正法律案
一、宗敎團體法案
一、昭和十四年一般會計歲出의財源에 充當키爲한 公債發行에關한法律案
一、兌換銀行券整理法中改正法律案
一、作業會計法中改正法律案

新嘉坡特高警察 邦人을大量檢擧

【新嘉坡十八日發同盟】昨年以來 再三密偵嫌疑로 日本人方面에對하야 收索하고잇든 新嘉坡警察 特高課日本人係모크氏는 十八日未明 또다시部下十數名을 引率하고 日本人大檢擧를 行하엿다 取調를 바든것은 南洋方面觀察中인滿鐵社員渡邊第一郞外二名、파일로트萬年筆製作所出張所靑木治郞、貿易斡旋社長小原友吉等七名을 모두就縛하고잇는것을 搜索하야 自宅及事務所家宅을 搜査를 行하고 書類全部를 押收하엿다 몹시拘束치안코 出頭形式으로 되여잇다 嚴重取締를 行하기로 되여잇다 貿易斡旋社는 四時間동안이나 檢察을 바덧고잇다 이는 國際情勢緊迫과 日英關係를 反映하야 最近極度의 神經過敏이된 新嘉坡官憲의 密探嫌疑에 對하야 新嘉坡在住邦人은 매우 憤慨하고잇다

蔣의統制力崩壞 四川軍閥의反抗으로

【河內十八日發同盟】支那側情報에 依하면 重慶行營의 成都移轉을 企圖하는 一方四川에對한 實力的抑壓을 企圖한 蔣介石은 表面服從을 假裝하는 四川軍閥의 內面的反抗이 意外로 强함에 驚愕하야 去十六日 갑작이 行營의 四川移轉을 中止하고 境遇에따라서는 重慶行營도 廢止하여도 조타는 旨를 暗示하야 彼等을 懷柔하여 努力하는 一方 일직부터 態度가 曖昧하든 雲南省主席龍雲에 對하야 汪精衛脫出以來 再三의 督促電報를 發하야 重慶에 招致하려고 하얏스나 最近에는 去十日을 期限으로한 威嚇的招電을 發하엿스나 이에도 應치안흐므로 腹臣인 貴州省主席 吳鼎昌을 數日前昆明에 急派하야 懷柔에 애쓰고잇는 模樣으로 蔣介石의 統制力은 急速히 崩壞의 一途를 것고잇는것으로 觀測된다

各地反蔣氣運激化 汪廷楷態度曖昧

【上海十八日發同盟】汪精衛脫出은 全中國共產黨의 全面的進出을促進한一方 國民黨 右派其他 反共分子의 中央에對한 反感도 漸增시킨結果를 招來하고 結局은共產黨에갈려 어떠케할수도업는 蔣介石에對한 不信에로發展하야 이미雲南 西康或은 廣西方面의 反蔣氣運은 隱蔽할수업게된 形勢인바 다시 汪廷楷도 赤匪 第十九路軍等을 背景으로하고 態度가 매우 曖昧하게되엿다

玄武湖畔

中支戰跡巡禮 ⑰
南京에서 宋政勳 畵・文

南京風景은 어디로 보던지 오랜歷史가 잠기어잇고 特히 城壁을 끼고잇는 十餘의 大門에는 옛날의 都邑이라는 懷古的氣分을 더욱 주는것이다

오늘은 數日間 구진비가 나리다 개인 年頭의 四日이다. 畵具를메고 玄武湖에 五洲公園을 차저서 新舊日를 通하야 左便에 鍾樓와 金陵大學을 바라다보고 右便에 淸凉山上의 北極閣과 鷄鳴寺의 如前함을 보앗다 國民黨部아페 玄武門을 드러가서 左右에 느러저잇는 蓮根밧사이를 거닐다 맛보는 물빛이 보이엿다 玄武湖를 遊覽하는 一二三의 小舟에 江南情趣를 서드른 蓮葉사이에 黃昏의 배를저어 놀고잇는 記憶이도 江南이어니 보키드른 風景이고 閑暇히 보이는 鍾閣、名山、비죽인 紫金山 淸凉山을 차고돌은 玄武湖水에 잔잔히 비최여주고잇다 나는 湖畔의 따듯한 양지에 안저서 여페 이방의 감회속에 저것을 옮겨노나하고 잘스럼하다 그대로 가지고 도라왓다(完)(寫眞은 報道部檢閱濟)

對日經濟壓迫을 聯盟에哀願
顧、支那代表理事會에

(寫眞은 顧維鈞)

【쥬네브十七日發同盟】國際聯盟理事會 第二日은 十七日 午後開會되엿는바 劈頭 顧維鈞支那代表가 發言을求하고 起立하야 午後五時四十五分부터 約三十分동안 演說을하엿는데 그結論은 日本의 戰鬪力을 弱하게하고支那의 抗戰力을 强하게하기위하야 左의各項을 實施하여 달라고 要請하엿다
一、日本品을 뽀이코트하고 原料物品、飛行機、게솔린等輸出禁止에依하야 對日經濟壓迫手段을採用할것
一、聯盟諸決議中 特히 一九三七年十月六日의 總會決議를聯盟國이實施할것
一、對支軍需品輸送方法을 確保할것
一、聯盟國非聯盟國의 對支援助를 有効하게하기위하야 調整委員會를設置할것
但委員會는 極東에密接한利害를가진國家에 限定할도無妨
그리고 顧維鈞의 演說終了後理事會議長산드라瑞典外相은 支那의要請을考慮할旨를約束하엿다

反英運動契機로 蘭貢에總罷業氣勢

【蘭貢十五日發同盟】緬甸首都蘭貢은 數日來 共產分子의反英運動을契機로 不穩氣運이 濃後하므로 警察當局은 그檢擧에猛活動을하고잇다
一方勞動者側은 十五日을期하야 一齊히總罷業을할 氣勢를올리고잇다 政府當局은 軍隊一部에出動을命하게 臨時에分乘시켜 市中警戒에 當케하고잇는等 市內은極度로 緊張되고잇다

米製飛機、機關銃 多數蘭貢에入港
對支軍需品輸送活潑

【香港十八日發同盟】프란스・오시안에의 蘭貢來電에依하면 英國汽船 우스라샤號는 十七日 米國製飛行機及 機關銃多數를 積載하고 蘭貢에入港하엿다 이武器는 最近 締結된米支借款에依한것으로 今後도 繼續飛行機를 輸入할것이며 米國人飛行敎官數名도 蘭貢에 到着한다고한다

駐支米大使 紐育經由華盛頓에

【紐育十七日發同盟】在支米大使 존손氏는 蔣政權驅逐命令에由 南國의길을떠나 十七日 佛蘭西汽船 어딘트 프란스號로 紐育港에到着하엿다 大使는 往訪의記者에對하야 『支那側은반드시最後勝利를 어들것이라고 생각하고 잇스나 只今은 어무말도할수업다』라고 말하엿슴으로 即時列車로 華盛頓에向하엿다

我荒鷲群大編隊로 赤都西安을奇襲
敵主要軍事施設을徹底粉碎

【〇〇基地十八日發同盟】陝西河南空中을 震撼시키면서 連日空爆을 敢行中인 我荒鷲 山瀨部隊의 中村 兒森 鈴木 各部隊는 大編隊로써 十八日 午後一時 赤旗가 飜飜하는 西安의軍事諸施設及 市街를 爆擊하야敵에 大損害를 주엇다 我荒鷲은 조흔天候에 勇躍出發 渭河에沿하야 同地西北角에出現 第八戰區司令部 第八師司令部辦事處 第七師 第十四路軍司令部辦事處及 敵兵營에 巨彈을 퍼부어 敢散히 粉碎하야 敵陣으로 하여금 大混亂에 빠지게하고 爆火하야 때마침 南風에불리어 即時擴大하야 同地西北方은 大火焰化하야 方今猛煙중에 잇는 中이다 그리고 西安綏靖公署 西方에잇는 省政府는 我中村 空爆隊의巨彈二個가 的確히命中되여 大建築物은 黑煙속에 倒壞되고 要人中死傷者가 多數한模樣이다

【〇〇基地十八日發同盟】我陸軍航空隊는 猛烈한 敵防空砲火를 冒하고 西安兵營及 第八路軍司令部附近에서 悠悠三回나 旋廻하고 赤色路線을 粉碎하고 凱歌를부르며 全機無事歸還하엿다

004143

總督의決裁事項 六分의一로減少
委任事項全面的改正結果

庶政刷新의 一具體化로서 總督府委任事項의 全面的改正을 硏究하야오던中 最近 決定을보게되엿다 今回의 改正의 結果
一、總督의 決裁을 어더야할 것이 約六分의 一로 減少되엿다
一、政務總監의 決裁를 어더야할 것이 四分의 一로 減少되엿다
一、從來下級官廳의 主管事項의 權限事項으로 通牒等에 依하야 總督府의 承認을 要하는 等이 六十餘件이 된바 右改正을 맛게 重要事項中原則으로 全部를 作하야 委任範圍의 擴大를 隨함과 各部局課長及道知事의 責任은 一層重大性을 加하게되엿다 그리고 委任事項이라도 依然 異例에 關한 事項或은 重要事項에 對하야는 各其上官의 決裁를 經由하여야되게되엿다

遞信分掌局保險監督課長會議

遞信局에서는 來一月二十三日부터 四日間에 亘하야 京城、釜山、元山及平壤의 各遞信分掌局保險監督課長을 招集하야 遞信局에서 會議를 開催할터인데 그協議事項은 如左하다
一、朝鮮簡易生命保險事業에 關한件
一、昭和十四年度에 잇서서의 新規契約募集獎勵施設에 關한件
一、朝鮮簡易生命保險福祉施設에 關한件
一、朝鮮簡易生命保險事業創始十周年紀念施設에 關한件
一、保險積立金運用上策에 關한件
一、國立金利約款貸付制度改正에 關한件

"各地宣撫工作도 順調로히進捗"
岩崎部隊長陣中消息

元朝鮮軍高級參謀、報道班長岩崎民男大佐는 昨年十月부터 中支戰線第一線部隊長으로서 活躍하고잇는바 陣中의餘暇를利用하야 朝鮮軍出入記者의 龍尾俱樂部에對하야 左와如한書面과 同時에 年頭賀狀을寄付하엿다

新年은 벌써 第十數度의 추위이겟지요 軍司令部의 朝鮮의 十月頃과갓다 밤이라도 火爐가 必要치안흔程度로 따라서 때리와오기가 겨울만치 만라한면 各地모두 宣撫工作이 順調로히 進捗하고 治安維持會도 成立되엿스며 住民도 次次로 歸來하는것갓다 처음에는 外國租借地에 잇던 支那人避難民도 요지음 我方의命令에 服從하야 全部避難民이 收容하는데 이러니저러니하면 外人들도 實力아페는 아무소리도 업슨것이다 이미 市場도서고 物資도모이어 人馬가 다 元氣를 恢復하고 一方 兵器의 修理와 兵의 猛訓練에 힘쓰고잇서 次期作戰準備에 餘念이업다 諸兄도 報道陣을 爲하야 잘 活動하여 주기바란다

舊法幣流通을 三月十一日以後禁止

【北京十八日發同盟】臨時政府는 聯銀券을 主要通貨로 定한 聯合準備銀行의 法幣整理에 努力하고잇는바 法幣에對하야는 去一月四日 第二次切下布告를 發하고 來三月十日로써 舊通貨整理法에 規定한 舊法幣流通期間이 終了하게 되므로 三月十一日以後는 舊法幣의 流通을 一切禁止하고 聯銀券만을 一色通用키로 決定하엿다

上海共同租界 領事團判事決定

【上海十九日發同盟】昭和十四年度共同租界領事團裁判所判事로左記三氏가當選 十八日領事團으로부터 工部局에 對하야 通告를 發하엿다
日本總領事 三浦 義秋
米國總領事 까우스
英國總領事 히귀푸스

靑木重臣氏 首相秘書官에

【東京電話同盟】福井縣警察部長靑木重臣氏는 首相秘書官에轉出하기로되여 十八日如左히發令되얏다
福井縣警察部長 靑木 重臣
任內務事務官(四等) 命警保局勤務 兼任內閣總理大臣秘書官
廣島縣學務部長 中村 元治
任福井縣書記官(三等) 補警察部長
그리고 廣島縣學務部長後任은 一兩日中에 決定될터이다

人事・集會

▲西村眞太郞氏(總督府通譯官)約三週間豫定으로 上海、南京方面視察次十九日午後四時十五分京城驛發長崎經由 一路中支에

夕刊後市況 十八日

◆朝取短期◆

	後引	高價	低價
朝取	—	—	—
同新	三三・三	三三・三	三三・三
大新	—	—	—
東新	一一四・五	一一四・五	一一三・〇
滿業	七一・〇	七一・〇	七〇・三
鐘紡	一四七・一	一四七・一	一四七・一
同新	六八・七	六八・七	六八・一
朝石新	—	—	—
小林新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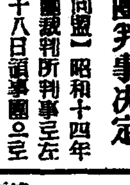
◆各地期米後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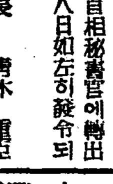
	當限	中限	先限
大邱	—	—	三三・六九
群山	三三・七六	三三・七九	三三・八八
木浦	—	三三・六〇	三三・八〇
下關	—	—	三三・七一
名古	—	—	三六・四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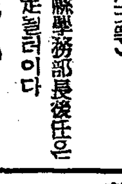
◆各地商品後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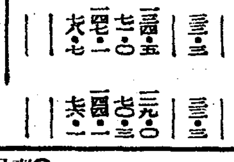
	當限	先限
福井人絹	—	—
橫濱生糸	八六〇〇	八五五〇〇

먼저 就職
조흔講義錄으로工夫하야 하로速히 立身成功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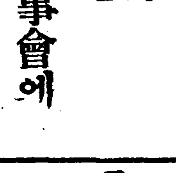

鐵道員となる近道
全國各鐵道에서 每年大募集
日本鐵道敎育會 東京市牛込區台町


巡査となる近道
巡査만큼愉快한職務는업다
日本警務敎育會 東京市牛込區台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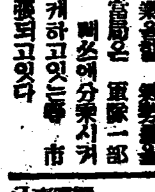

藥種商となる近道
藥劑師와가튼藥種商
日本藥種商敎育會 東京市牛込區台町


運轉手となる近道
運轉手 나도 되고십흔
日本自動車敎育會 東京市牛込區台町

中學講義
어데보다도卒業이速하다
어데보다도會費가싸다
어데보다도알기쉽다
自宅獨習겨우一年卒業
無職은男子의羞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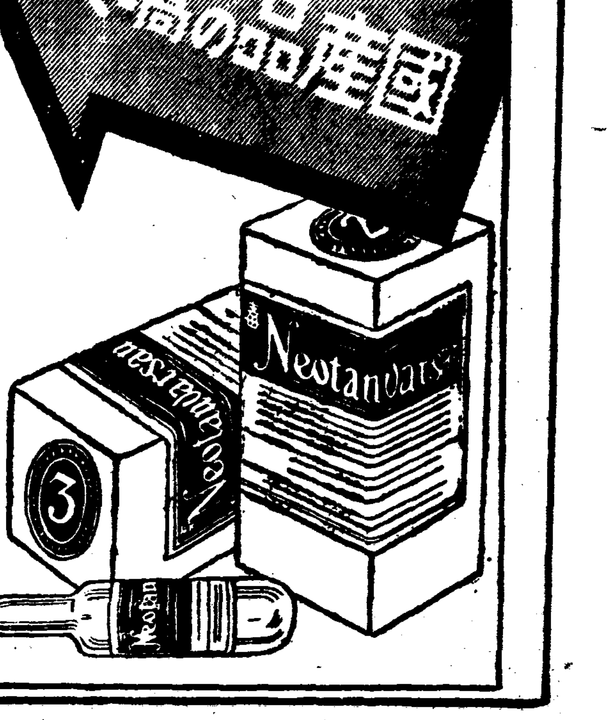

見本과規則無代進呈
日本通信中學校 東京市牛込區台町

手紙習字講義
惡文惡筆은一生의損


日本書道敎育會 東京市牛込區台町

靜脈注射用
ネオ・タンワルサン
國産品の嚆矢
驅黴砒素劑

二十五年의 光輝잇는歷史와 熟練된技術、完備된 設備에依하야 吟味精選된네오타ンワルサン은 專門諸大家의 推奬에依하야 年年그聲價가 益益노파진다



模造品에注意
驅黴成績의完璧과治療의完全과를期하는臨床家諸位는모두本劑를愛用한다

適應症
黴毒의 各期와 黴毒으로 이러나는各種의 隨伴症狀의 治癒와豫防에適합。
또脊髓癆、痲痺性痴呆、回歸熱、一般스피로헤ー데에因한 疾患、마라리아、鼠咬症、瘴氣熱、熱帶苺瘡等에도 特効잇슴
또天疱瘡、扁平紅色苔癬、鱗屑疹等砒素劑應用의 모든 範圍에 良効잇슴

包裝
一號(〇・一五瓦) 四號(〇・六〇瓦)
二號(〇・三〇瓦) 五號(〇・七五瓦)
三號(〇・四五瓦) 六號(〇・九〇瓦)

또靜脈內注射不可能의患者에 適當한 皮下注射用 ミオ・アーセミン 잇슴
또砒素劑와 交互使用에 適當한 蒼鉛劑キフロン의 選用을顧함

製造發賣元 第一製藥株式會社
本店 東京市日本橋區本石町三丁目
支店 大阪市東區道修町二丁目
出張所 京城府黃金町二丁目九十六番地
〃 奉天市大和區平安町三番地
NTO

風致防火美觀風紀等 主要都市地區指定

四月工業地區와同時指定할터로 市內는廿個所內定

총독부경무국에서는 오는 사월부터 경성을비롯하야 평양、인천、부산등 조선시가지계획령이 적용되여잇는 주요도시에 공업지역등 지역의지정을 하게되엿는데 이와동시에 풍치(風致)방화(防火)미관(美觀)풍기(風紀)의 지구지정을 하게되엿다

이지구의 지정은 아직까지 전조선에 아모곳도 지정되여잇지안흔데 우선 경성부안에 대한 경성의풍치를 유지하기위하야 북악과 인왕지구등 이십개소의 풍치지구를 지정하기로 내정 되엿다 이이십개소의 풍치지구는 경성부회에 걸어서 부로서의 자문안으로 결정을한다음 총독부안에잇는 시가지계획위원회를거처서 오는 사월에 총독이고시(告示)를 하게될것이다 이와가티 지정되는 이십개 풍치지구는 조선시가지계획령 제이십일조에따라 그지구안에잇는 토지를 개간등으로서 형태와성질을 변경한다던지 건물등공작물(工作物)을 신축하던지 개축하던지 큰수선을한다던지 허러버린다던지 물건을쌋아두던지 나무나 흙을 채취한다던지 풍치를 유지하는데 영향을미칠 염려가잇는 일체행동이 금지도는 제한되게된다 이금지제한에 대하야는도지사가 상세한규정을 맨드러서 고시를하게되는것이데 현재의 이지구소유자는 자못영향을 밧게될것이다 지정을바들 경성부내 풍치지구는 다음과갓다

▲北岳及城北地區 ▲貞陵地區 ▲淸凉地區 ▲開運寺地區 ▲駱山地區 ▲淸凉地區 ▲敦岩地區 ▲龍鳳地區 ▲明水地區 ▲南山地區 ▲漢南地區 ▲番大地區 ▲楊花津地區 ▲上水道地區 ▲臥牛山地區 ▲老姑山地區 ▲安山地區 ▲孝昌地區 ▲延禧地區 ▲仁王山地區 ▲洗劍地區

第二次區劃整理

漢南町、番大方町、龍頭町、沙斤町에實施 府豫算二百萬圓計上

경성부에서는 도시계획사업의 하나로서 그동안 영등포(永登浦)돈암정(敦岩町) 대현정(大峴町)에 제일차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착수하야 방금예정계획대로 진행중인데 오는사월 새연도부터는 제이차로 한남정(漢南町)용두정(龍頭町)사근정(沙斤町)번대방정(番大方町)에 약일백륙십만평의 구획정리사업을 착수하고저 그예산 이백십만원을 신년도예산에 계상하게되엿다 즉 한남정지구에는 삼십일만평、번대방정지구에는 삼십팔만평、용두정에는 오십팔만평 사근정지구에는 오십이만평 합계일백오십구만평으로 결정되엿는데 도로십설택지조성、공원、시장부지의 설정、하수설비、수도설비등을하는것은 종전의 제일차계획사업과 다름이업스나 이모든사업을 그전보다 훨신 긴속해서하는것 파 특히이번 구획사업에 주목할만한점은 종래는 사업재원을 기채(起債)로해서 지주가 사업비를 매평에 얼마식 미리부담하엿섯는데 이번에는 기채가업시 되지못하는판게로 지주가구획정리된후에 환지(換地)를 바들부분에서 약간식을 떼여서이것을 판돈으로써 사업비를삼게 되므로 지주가 부담금을 내지 안키로되리라고한다

職場에醫療機

鐵道局、從業員保健對策으로 各驛事務室에吸入器를設置

철도국에서는 최근 종업원이 부족한데다가 호흡기병(呼吸器病)환자가 속출하므로 이번에그 예방대책의 일단으로 각지방역 으로부터 오는여러가지서류를취급하는판게로 늘본지속에서일을 하고잇는 조사과심사계(調査課審査係)에다『특허수세식 흡입기(特許水洗式吸入器)』를 설치하기로하얏다 사무실안에다가 흡입기를설치하기는 이것이처음으로흡입기는 점점식인 네개의흡입기가 부되며 언제든지 자유자재로할 수잇도록되여잇다

府民의食肉 三百卅七萬圓

경성부영 도수장(屠場)에서 작년 일년중에 도살한소、도야지、말、염소는 전부삼만팔천팔백오십삼두이고 그가격은 삼백삼십칠만칠천이백이십오원십육전에달하엿는바 이것을 전년통계에 비교하면 머리수로는 삼천팔백삼십구두가 줄고 가격으로는 구만육천오백팔십이원 육십사전이 감소되엿다 종류별의 도살상황을 보면 소는 이만삼천사백사십일두、가격은 이백구십팔만오천일백육십원구십전이고 도야지는 일만오천이백칠십오두에 삼십팔만칠천구백팔십원이 삼천이고 말은 일백이십사두에 일천칠백칠십원이며 염소는 … 백칠천신삼원이어서 전년보다는감소되엿서도경성부민은 어지간히 도 고기를만히먹는것을 말하고 잇다

白米一俵盜難

【全谷】 전중의기군신년을 마지함에도 불구하고 인간도덕에탈선한 암행절도대는 구년말을격하야 출현키시작하엿다 지난십륙일밤에 전곡에서대규모로 곡물상을 경영하는 리종원(李鍾元)씨는 창고에 너허둔 백미한가마니를 절취 당하엿는데 그날밤은 사무실에서 밤열두시까지 사무를 보고 거의 한시는 되여서 자기 시작하엿스나 그동안은 갑작가치 잇섯는데아츰에 이러나보즉 발끗도록 노여잇든 백미 한가마니가 간곳이업기로 살피여보즉 밤에다든 유리창문을열고 절도가침입하야 절취하야간것이엿다한다 이에신고를바든 전곡주재소에서는 직원이 총동원하야 절도범을엄탐 수사중이다

蘇領事館廢鎖냐?

모든情勢의綜合論 "不遠撤去"

부내 정동정(貞洞町)에잇는 소련 경성총영사관의 폐쇄는 다못시일 문제라는말이 점점 유력하여지고잇다 즉 이 이야기의 근거를아라보면

(1) 작년십월 동경에잇는 소련대사관으로부터 경성총영사관에 『영사관폐쇄와 귀국준비를하라』는 밀령이 도달하엿다는것

(2) 작년가을 본국에불려간 총영사『아이싱』씨는 그해크리쓰마쓰까지 꼭도라오리라던것이 해가넘도록 소식이 업다는점

(3) 경성총영사관을 지키고잇는 총영사대리『이와노프』씨가 작년가을 부인을 본국에 돌려보낸후 아직 다려오지안흐며 더욱 동씨가 최근『경성총영사관은 소련측에 하등이익이 업스니까 폐쇄하여도조타』는말을 누설하엿다는것등 여러가지를 들수잇다

낙엽된 나무사히로 엿보이는 옛건물이 아츰부터 나리기시작한 눈비에섞겨 바람벽이 희고새롭게보이며 무거운 침묵속에잠긴 넓다란 구내에는 사람자최 하나업서 더한칭 쓸쓸해보인다 날근청기와미테 멧사람잇는 관원들은 과연 어느때 비밀히 짐을싸가지고 떠나려는것인지 그때가 오기까지는 밝히알바가업스나 모든정세를 모아보면 불원에 떠나는것만은 틀림업는 모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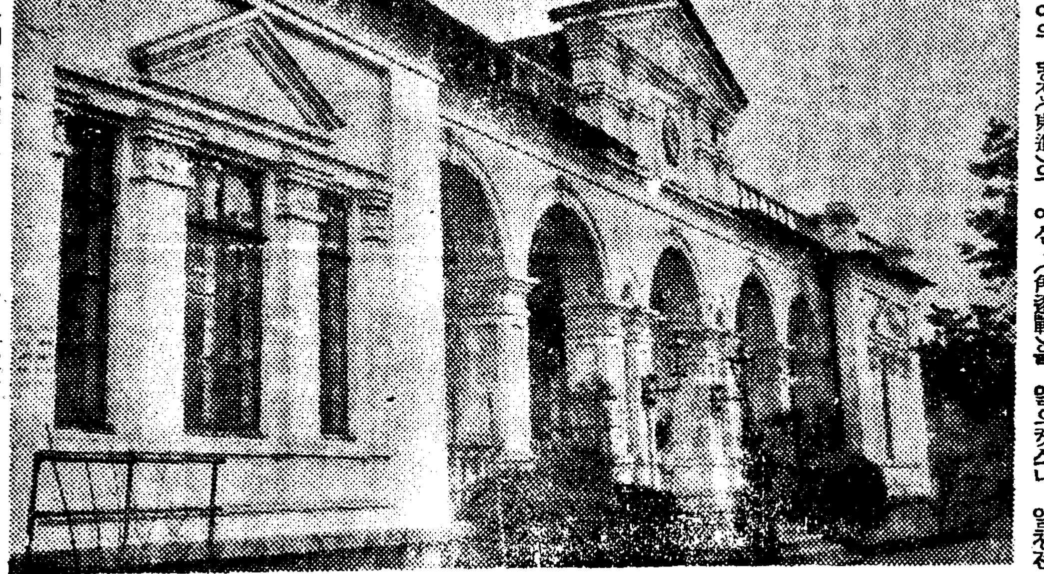
昔日의野心今日의孤影

時代는흐르고歷史는變하야 風雲의策源地"俄館"의落莫

국공영에 힌것은 제정로서아정부가 북경(北京)공사관서기로이든 『칼·외벨』을 서울에보내서 이태왕 이십일년 칠월드디어 무상조약을 매개하고 이어서『외벨』이 한국에 머므는공사와 총영사가되여 그의외교적수완이 어느듯 로서아의 세력을 한국조정에 심어노코 말엇스니 이때부터 노서아공사관을차지고도는 종전의 자못 규격하고 다단하엿든것이다

로서아령사관을 중심으로한사건중에 가장널리 알려진것은명치이십구년 (俄館播遷)사건이다 이해 정월초하룻날 이태왕이 삭발령(削髮令)을 내렷는데 이로인하야 여러곳에서 민요가이러난것을 기화로 눈치빠른 『외벨』은 이때 공사판보호라는명목으로 이월구일 수병백명을입성케하엿스며 이월십일일 새벽에 이태왕께옵서는 태자와함께 로서아공사관으로 파천하옵섯다 이어서 친로파(親露派)들의책동으로 조선안친로파의『쿠데타ー』가 잇섯고 로서아공사는 인천(仁川)에정박하고잇든 군함으로부터 수병을 상륙시켜 정동일대를 더욱 굿게지켯다 이가티 나라가 어지러운가운데 이태왕께옵서는 일년남어지 이곳에 게시옵다가 명치삼십년이월 경운궁(慶運宮)으로 환궁하옵섯다

이당시의 조선은 이러틋 제정로서아의 동진(東進)의 야심과 아울러 지나의 야심의 틈에끼어 고민하엿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일로, 일지의 각축전(角逐戰)을 일으켯스니 일청전쟁, 일로전쟁이 모두 여기서싹튼것도 두말할것이 업는것이다



세계전쟁이후, 제정로서아가 몰락되고 저가, 붉은기빨을 휘두르게된이래 서울의 이집도 써비엣트 노서아 총령사관으로서 오늘에 이르른것이다 이러케역사는변하고 세월은 흐르는동안 동아의 역사는 다시한번 발전되여 만주사변을 치럿고 다시 지나사변이 이러낫거니와 이리하야 조선은 이제『동아의 안정세력』의 병참기지로 안정되엇고 방공주축(防共樞軸)은 나날이크고 구더가는 오늘날 지난날 친로파 야심이 서리엿든 이집에서 다시 『외로운』붉은 깃빨』도 물러가는 소문을 퍼트리고 잇는것은 실로 근세역사를 도라보고 현하시국을 살피는 사람이면 누구나 저절로 감개가 무량할것이다

(사진은 폐쇄설을전하는 소련영사관)

男便죽인"高木" 今日公判開廷

작년여름 내지에잇는 친정으로 가기가실혀 자기의남편인전 경성직업학교 교유 고목가부(高木嘉夫)를 칼로찔러죽이고 자기도 철도자살을 하려고하엿다는 부내 삼판통(三坂通)고목만수자(高木滿壽子)에대한 살인피고사건의 제삼회공판은 십구일 경성지방법원에서 부옥재판장주심 이등(伊藤)검사입회하에 열리게되는데 피고에대한사실심리는 지난연말에 대강마치엇고 그후범행당시 그의 정신상태가 어떠하엿스리라는 정신감정을 성대(城大)구보(久保)박사에게 의뢰하게되엿든것이며이날은 결심을하고 검사의 구형이 잇스리라한다

賭博盛行

【鎭南浦】 구연말을입두고 진남포경찰서에서는 방금 도박상습자를 총검거하는중 매일밤 두세패가 걸리여 범써이십여명이 유치장신세를지고 잇다고한다

船舶火災頻發로

警務局、關係方面의注意喚起

작년중의 선박중요화재는 겨우 다섯건에 불파하얏는데 금년에드러서는 겨우반달동안에이미 대해환(大海丸—京畿) 삼광환(三光丸—全南) 질자환(蛭子丸—江原) 식전환(植田丸—咸南)등 사척이 소실하야 그손해가 십팔만원에달하야 작년년의손해를 초과하엿스므로경무국에서는 관계각국과 각도를통하야선박손실방지에 관한 주의를환기하기로되엿다

昨夜和泉町에大火

五戶全半燒·損害는一萬二千圓

십팔일 오후열한시 삼오분쯤 부내화천정(和泉町)이백칠번지경정(京龍)화천정 변전소 건너편 박영원(朴永遠)의 가개에서불이 나서 불길은 겻잡을사이도업시엽집인 정우호(鄭禹昊)의 고무신가개로 또다시 그여편 방동년(方東年)의 잡화상으로 옴마타기시작하엿다 이날밤 때마츰맹렬히불어오는 북서풍으로 불기운은 더욱빼기 시작하야 이상세집 좌우여프로 잇는 포목상과 잡화상을 바소하고 소방서원의지켜으로 열두시경에 진화하엿다 불난원인은 색기와 부대장사를하는박영원의 가개에서 저녁에집에갈때 화로의불을 잘 끄지안허 그것이여태잇든 지폐에 불마타것갓다고하며 손해총액은 약일만이천원이며 인축의피해는 업다 또한이곳의건물은전부가회정 유치창(尹致昌)씨의소유라고한다

廢物利用報國會

京城府會、財團確立에邁進코저 懇談會를開催코討議

경성부에서는 십칠일 오후두시부터 부청회의실에서 재단법인 경성폐물리용보국회(京城廢物利用報國會)의 설립등에 관하야 부의원 간담회를 열엇다 경성부의 안으로서는 경성부의보조로 이만삼천원、총독부의 보조로 일만오천원、도의보조로 이천원、합계사만원의 재단법인을설립하자는것인데 다소의 반대도 잇섯스나 대개찬성이어서 결국 부의원안대로 새예산에 부의보조액이 계상될모양이다 그리고 이보국회의 기구는 부윤이리사장이되고 삼부장과 시국총동원과장등이 리사가되며 학식잇는 사람과 경험잇는사람 또는 영업자와 관공리가 평의원이되고 이밧게 고문약간명을 정하게될 모양이다

분푸리로放火

【廣梁灣】 누보=지난사일오후칠시에 룡강군해운면궁산리(海雲面弓山里) 백승현(白承鉉)의집에서불이이러나서그이웃집까지전소되엿슴은 누보한바어니와 이는 그간룡강서에서 사법주임이 형사대를다리고 현장에출장활동하야 용의자로 동리에사는 한석봉(韓錫鳳)을 지난십삼일에 검거하야 본서에 인치취조한결과 방화범으로 판명되엿다는데 범인은 피해자의장녀인 백신옥(白信玉)과 지난팔월부터 따뜻한사랑으로 지내다가 부모가 허락지아니할것갓해서 사랑으로 얽킨 두남녀는 슬그머니부모의 눈을 피하야 모지방으로도망까지하엿다가 그부모가 탐지하고 그딸을차저다가 평남선천지방엿전 한모와약혼시키고 지난십이월이십일경에는 한모의 집에서 송재까지지내서 머지안흔 시일에 결혼식이잇슬줄안 전기한석봉은 철석가티 굿게약속한 그사랑도 수포로 도라갓스므로 분통참지 못하야 분푸리나하자하고 그날 그와가티 불을 노흔것이라고한다

스포ー츠 뉴ー스

常勝의朝鮮氷上 豫想飜覆코敗北

新進泉山君優勝·張君은三位 全日本氷上大會閉幕

【諏訪湖에서 영귀구락부主將 安重熙君發電】 第十回全日本氷上스피ー드選手權大會 第二日은十八日 午前九時十五分부터 諏訪湖링크에서 열리바 昨報以後의戰績은 다음파가트며 이날綜合選手權을 左右할一萬米레ー스에는 五百米、千五百米、五千米三種目의 成績에따라 十四名이 出場케되여 七組에나노아 競技를하한바 颱風과吹雪로 漸次『컨디슌』이 惡化하야 크게 期待를가젓던 張祐植君도 所期의 成果를 엇지못한채 물러서니 萬米에는 豫想조차 하지안헛든 泉山君(明大)이二十分十秒六이란 노력으로 이나마 一着을占하야 綜合選手權을 처음으로 獲得하엿다 이리하야 우리의 先輩들이 五次나 連續保持하고잇든 全日本의覇權은 우리손에서 사라지고마럿다 이번大會와가티 戰前豫想을 飜覆시킨 그例는 별로 업섯다 우리는 다만 捲土重來를 期約할 뿐이다

【千五百米續報】 6崔東洙(明大) 7安重熙(明大) 8張日弘(明大) 9金健會(新義州) 10張祐植(明大)

【一萬米】(세파레ー트코ー스) 1泉山(明大)二〇分一〇秒六 2張祐植(明大)二〇分三七秒三 3金健會(新義州)二〇分五八秒六 4尹寶植(明大) 5高林(明大) 6金莊鉉(明大) 7古坂(岡谷工業) 8安重熙(明大) 9南洞(早大) 10李仁源(明大)

【綜合選手權順位】 1泉山(明大)二一三點〇七五 2南洞(早大)二一三點八七〇 3張祐植(明大)二一四點二二二 4金健會(新義州) 5金莊鉉(明大) 6高林(明大) 7尹寶植(明大) 8安重熙(明大) 9古坂(岡谷工業) 10李仁源(明大) 11山下(早大) 12崔龍鎭(京城)

日滿對抗에出場할 氷上選手決定

【諏訪湖電話】 大日本스케ー트聯盟은 十八日全日本選手權大會 終了後 곳本部에서 日滿對抗競技出場의 日本代表選手銓衡委員會를 開催하고 男子八名、女子五名의 出場選手를 다음과가티 決定하엿다 그리고 一行은 追後에 決定될 氷上하키ー十二名、피규어ー三名의 代表選手와 함께 來二十三日午後六時 東京丸之內 中央亭에서 結團式을行한다음 二十四日午後一時半 東京驛發列車로 一路滿洲로向發하야 二十八、九兩日新京、三十一日二月一日大連、二月四、五兩日奉天、七日安東에서 四回의 日滿對抗戰을 行할터이다

【男子部】 ▲短距離=山下(早大) 高林(明大) 南洞(早大) ▲中距離=金莊鉉(明大) ▲長距離=張祐植(明大) 古坂(岡谷工業) 尹世植(明大) 泉山(明大) (女子部는省略)

"스키ー" "行軍" 스키ー어ー의 本格的 씨ー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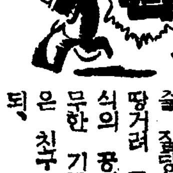
을 마지한 朝鮮山岳會와 日本旅行協會朝鮮支部에서는 最近健全의 國民體位向上과 精神作興을위하야 來二十二日(日曜)에스키ー行軍會를 開催하기로되엿는데 코ー스는 洗劍亭부터 三防까지를 約五時間에 突破할터인데 人員에는 制限이업고 資格은 男女別이업시 한씨ー즌以上의 스키ー經驗者이면 參加할수 잇게되엿다 出發은 二十一日午後十一時五分 京城驛發스키ー列車로떠나 二十二日午後八時四十五分에 歸京할터이라한다 會費는 必要치안코 二十一日까지 旅局內日本旅行協會朝鮮支部、三越和信內의『뷰ー로ー』本町一丁目『도야』에 申請하기를바란다고하며 指導員은 山田會 五名인데 코ー스의 積雪量은 約一米突이라한다

수미運動

▲아이스·하키ー=朝鮮學生氷上競技聯盟主催 第二回 大學、高專 아이스·하키ー 리ー그第三日…普成專門對 京城醫專(午後二時) 延禧專門對 大學豫科(午後七時)以上全部 東崇町大學링크(觀覽無料)

疑問의鐵道自殺

【沙里院】 해가 바뀐지도 몃칠 이안된 십삼일저녁 구사리원철도길목부근에서 남모를비밀과원한을 굿게품고 무참히도 쇠ㅅ세를 일기로철도자살한 젊은여자가잇섯는데 그는 사리원읍북리오십팔번지 변덕윤(邊德潤)의 첩 강부전(姜富全)으로서 지난팔월에 결혼을하야 가정적으로는하등 불화한사실이 업서 한동자살을 할만한 근거가 업섯다고 하는데 혹시 그가 남의 첩된것을 비판함이 안인지 도모지 자살원인을 알기어렵다고 하는데 그의친가가 매우 가난하야 이것을 늘걱정하고잇섯다고한다



떡

○ 이틀밤 하루나 줄 질탕히 동땅거려 무척취식의 공전 후무한 기록을지은 친구 가로되,

○ 하도 고생만 해와서 죽을셈잡고 한번놀아봣노라고, 이제죽어도 한이업노라고,

○ 오죽해야 그뱃심이——하고보면 술집, 사람의 맘을 파고드는 충알이 숨지안햇다고?

○ 하도 호사만해서 한번쑥을쌔잡고 고생을 해보노라는 귀공자도 잇서야할쏘 하건만……

○ 호떡으로 배를채며 고생하기 십년만에 조선팔망이완정되다

○ 고량진미에 무처사는 이들이야 귀족에도기름이 엉겨서 이런소문이 들리기나 할라고?

廣告

今日 天氣 曇後晴

一月十九日(木曜)陰十一月二十九日 ▲壬戌丙辰 ▲日出 午前七時四十六分 ▲日南中 午後零時四十四分 ▲日入午後五時四十二分 ▲晝間九時五十六分 ▲月出午前六時二十八分 ▲月入午後四時四十四分 ▲滿潮(仁川)午前 四時三十分 午後五時十分

肺病이낫는다, 速히全快하메놀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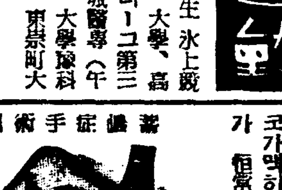
肺結核、肋膜、咳、痰、熱 … 東京市本鄕區森川町百十一 豊山院御藥所 振替東京九三二一番

病者患家에 一大의光明

東京帝國大學內에서 動物臟器藥品을硏究 … 熊膽丸 …

코나쁜사람

自宅에서할수잇는治療와其方法



코가막히든지 코물과黃色의 코가 흐르나오든지 냄새를 알수업는 것에나 … 埼玉縣大宮町(氷川公園) 東京鼻科藥房硏究所

戰線將士에게絶好의慰問品

パイロット固形インキ 파이롯트

陣中消息 쿠리ー크의 물에도 푸러저서 참우로조다 치워저도얼지안코 戰友에게도 나누어주엇드니 모두기뻐하엿다……

¥.30

一種五圓十圓で教へた秘法盡く公開 ●今まで他に類のない寶本!

本書內容目次の一部分

手紙上手は立身出世が早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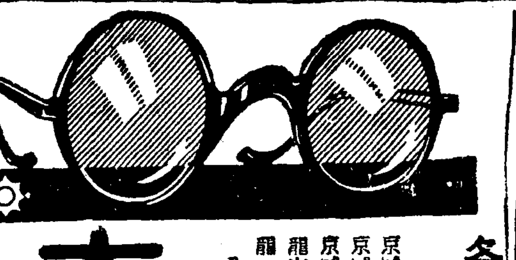
手紙の事なら何でも解る大評判の手紙の本 常用新案手紙大辭典 一圓廿錢

東京 實用漢和大辭典 いろは引大辭典 國民書院日報係

キノミール 育兒粉乳 기노미ー루

치아날때에도 따뜻한 편이넘치는 키노미ー루의젖으로씩씩하게…… (說明書進呈)

全國藥店에잇소 大 五〇〇 小 二五〇 株式會社 和光堂 東京市神田錦町 K.100



各眼科病院處方 眼鏡責任調製 京城府民病院眼科 京城醫專病院眼科 京城赤十字病院眼科 龍山鐵道病院眼科 龍山陸軍病院 江頭眼科醫院 金井眼科醫院 荒川眼科醫院 仁川岩永醫院 全鮮各道私立病院眼科御指定 京城帝國大學御用 京城府本町二丁目 電話本局②二三七五 振京一一二九 (眼鏡・望眼鏡カタログ送呈 要三錢) 大學堂眼鏡店 平壤府本町六番地 大學堂眼鏡店

本劑는陸軍藥局方에收載된 副作用업는 好評의優秀藥입니다 50球 100球 200球

淋疾 ツヨール 쓰요ー루 급성에도 만성에도

ツヨール合資會社 本社 東京日本橋區江戶橋 支店 大阪東區伏見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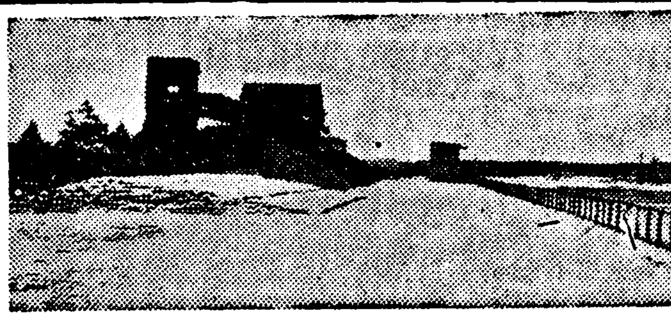
中部版

人夫統制反對 陳情經過報告

【仁川】(수보)인천항 부두인부 통제 문제에 대하야 반대운동의 봉화를 드든 맹렬한 반대를 하는 인천회조업(回漕業)조합에서는 지난날일 전조합원이 손을 나누어 총독부와 도청을 방문하고 인천항 부두작업에 대한 실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부영안은 우려 이 부두작업의원활을 이즈러지게 하므로 어디까지 반대하야 부영에 대한 반대진정의 경과보고를 지난 십칠일오후한시부터 부내해안정 해운구락부(海運俱樂部)에서 행하고 금후그대책을연의하였다한다

移轉後의競馬場跡 利用繁榮對策을講究

京城府와城東繁榮會에서



이후은 언는날에야 떠러질것인가하고 십만주민이 미워하던 동부경성발전에 고질의혹=경마장(競馬場)이 마츰내옴겨가기로되엿다 신설정(新設町)에잇는 경성경마장은 동부경성의 주심지대에 육만여평의기지를 차지하야 복가울로열리는 경마때외에는 그저련비 봉지로잇슬뿐아니라 그저이잇스므로써 그주위의 십이만평의 공지가역시 이용되지못하고잇게되엿다 한평의땅을 엇기가힘드러 거처할집조차 가지지못한주민도 주민이려니와 상업지대로서 제일중요한심장부가 이모양으로되여잇서서는 천만년가야 동부경성은 발전될수업다하야 성동(城東)번영회에서 오래동안 이경을이전하야달라고 충동부에진정하던것이다 그러던경마장의관리자인 경성경마구락부에서는 얼마전 독섬면송정리(松亭里)에잇는 동척토지십이만평을매수하고 해빙기를 기다려 공사를시작하야 삼년후에 완성되는대로 곳이전하기로 결정되엿스므로 경성부에서는 이전해간뒤의 경마장을 어떠케 이용하며 어떠케구획을 정리할가하고 벌써부터 기초안의 연구에착수하엿다

(사진은 이전하기로 결정된 경마장 전경)

서울의歡樂街로 諸般設計를進行

十八萬坪의廣大地域에

옴겨달라는요망이 간절하든경마장이마츰내 옴겨간뒤에 이자리는 무엇에이용할것이며 어떠한모양으로 구획을정리할것인가 흑이떠러진줄도모르고 경마장을이전해달라는 진정을하기위하야 성동번영회에서 지난 십팔일오후세시 부민관에서 임시총회를 열엇는데 기자가 가지고간 이전한다는정보를듯자 회장은 소원성취의환성이 벽력가티일어나는가운데 미리 준비해두흔것처럼내여보이는 번영회의비안은 다음과가탓다

즉 경마장의 육만평과 그부속지 십이만평합십팔만평의 넓븐꾸지는 주가에 너지하 간선도로를 끼고 좌우에는 바둑판처럼 정돈된상업시가지를 만들되 서울에서 제일큰 극장을 세우고 요리집 카페 빠-등의번화한거리를 건설하야이곳으로하야금 서울의 신숙(新宿)을만들어야겟다 하므로 이것이 실현되는날에는 장차 중앙선(中央線)과 경춘선(京春線)의 개통과 아울러 이지역은 서울의 환락가(歡樂街)로크로스·업 할것이다

京城府東部出張所長 洪祐完氏談

기쁜일이다 이로서경마장을중심으로 동부경성도 힘껏발전할수잇게되엿다 그지역의 이용에대한 복안과포부는 동부번영회를중심으로 벌써 오래전부터 중의가통일되여잇수 사변뒤에 옴긴다하니 조금 지감이 업지아니하나 이전된다는사실만이 다도통쾌한일이다

東部發展의 施設促進을陳情

城東繁榮會總會에서

성동번영회에서는 성동의당면문제인 도로 위생 교통등여러가지문제에 대하야 각각관계당국에 시설의촉진을할 진정안과 위원을선거하기위하야 십팔일오후세시부터 부민관이층식당에서 임시총회를열엇는데 한상철(韓相喆)씨외 십이인의 진정위원이 선정되엿다

(사진은 성동번영회총회회장)

理髮組合定期總會

【永登浦】영등포이발조합(永登浦理髮組合)은조기정례총회는 지난 십칠일오후한시부터 영등포(永登浦)에서 영등포경찰서 박(朴)보안주임입회하에 개최되엿는바 우선 황국신민서사제창의 뒤를이어 회계보고 역원개선 규약개정등이잇섯고 특히 금번부터는 종래밤열한시까지 계속하던영업시간을 십월부터 삼월말까지에한하야 열시까지하기로 단축하얏다 내빈측으로 박보안주임의 축사가잇슨후 동오후세시경에 무사

폐회하얏다

年末同情米를 窃取賣却綻露

【開城】작년십이월 이십칠일개성부당국에서는 연말동정으로부내극빈자에게 백미를 동정배급할때 이날여기사용인부로써 좌기삼명을 고용했섯는바

元町 六〇四 馬爾山(三一)
元町 六三五 高壽鳳(三一)
元町 四七七 金鍾鎬(三〇)

이들세명은 공모한후 부사회계원이 업는틈을타서 동정백미 세말(三斗三升)을넘겨도착쿄 두엇다가 그후 대화정(大和町) 양성시장(兩城市場) 박모(朴某)의 미곡상에다가 팔원오십사전에 매각해가지고 분배해먹엇슨바 요즘이사실이 개성서이(李)형사에게 발각되여 전기삼명은 유치장신세를 지게되엿다

燃料價暴騰의對策 薪炭組合設置說擡頭

價格統制와容量公平이目標

【開城】제반물가고에어매여사는 개성부민은 더욱이 멸나무갑때문에 살수업다는 비명이노파가 고잇다 그리하야 현개성신탄매매는 공평을위주한 용량매매도아니며 또는표준가격도 제정됨이 업시 그대로탑구지에 실은나무를 거드로만한번보고 사고팔고하는 형편이어서 서민생활을 요지음에와서 부당국이나 경찰당국에서는 신탄가격을 공평히 조절할문제가 더욱절감되여 어떠한 통제책을 강구하고 이에바자를마처 또한부민개조합을 조직할터이니 당국은 양해해달라는 주문이 드러와잇다 한다는것인바 실로 이들이제창한 신탄문제가 어떠케 귀착될는지 일반은 자못주시중에잇다고한다

氷上競技大會의 役員도決定發表

本社水原支局主催

【水原】어미보도한바와가티 본사수원지국주최의 제삼회중조선빙상경기대회(第三回中朝鮮氷上競技大會)에편하야 각부서에서제반준비에 분망중 대회역원은아래와가티 선정하엿스며 특별히 금번 대회에는 지방청년경기를 장려하는의미에서 주원부를따두고 또한일반부 여자부 소학부를두어서 위대한자연을친하며 건전한체위를향상시키며 건전한정신을가지게하자는바로임반의인까닭에 대한것은 본사수원지국(水原水原)으로 문의하기를바라는바이다 다대에원은다음과갓다

大會顧問 許宬 黒沼力彌 樗原剛雄 申鉉益 内藤眞治 石橋榊太郎 梁重顧 金炳浩 金東爾
大會長 崔景俠
總務 金衡培
審判 絹鍋約 金元培 車道昇
宋仁相 李商昇 金振淳 全基勳
記錄 金大均 車西昇 金衡泰
車仁順 張世傑
進行 禹翼福 李東鉉 金昌順
申鳳浩
救護 李完鎔

鐵道에轢死屍

【永登浦】십칠일오후 서시오십분경 인천발경성행열차가 영등포역을 통과중 노동지역으로부터 멀키로 오해미어의 영등포육지정을 통과중 국정조양조원공장(…工場)압부사철길노선상에 시체가 잇슴을 발견하고 노동지역에도 착하자 곳보고하여 의하야 신분불명의 이십전후의 남자의철도자살임을알엇다 조선복의 헌두루마기를입엇고 소지금십전을 가젓슬뿐 하등 증거품도 업섯스며 시체는천분만열(千分萬裂)로 형체조차 업스리만치 참혹하엿는데 원인신원등은 방금영동포서에서 조사중이다

始興郡青年에게 志願兵制度解說

【永登浦】국책명승 내선일체의 시 저박정신을돕아하한것지원병모(增募)되는 육군특별 지원병제도에대한 당국의 의도(意圖)를 보바더서 시흥군에서는 군내각면청년단원의 유자격자만의임시총회를 개최하야 그제도에관한취지를 철저히 하게되엿는바 십오일에 개최한 서이면(西二面)청년단의 임시총회에서는 중원(中園)시학으로 부터간곤한강화가잇섯는데 상면의희망자가 서엄을하엿다 더욱기라면에서도 순차임시총회를 열어취지의 철저를도모할예정이라한다 라할까 개성부일정의 지원백지상인 배우기(白凋基)의장녀배경의(…)은 엽네살때 본적지 경화여자보통학교(貞和女子普通學校)를졸업하고 이래가사에종사하며 항상동경생활의 유화하는것을부러워하야 이것을오늘하여오던중 요새는도리혀학교선제까지 지명 치게되매 이를기피하야 십사일 새벽무단출가하엿다 향학심의라오른는가슴을 보듬켜안고 안개 거를로 아득한 회망에 경솔된 도 하며 부산방면을 향하야 도망 하던길에 무슨생각으로 영 등포역부근에서 배회하다가 영 등포서형사에게발견되엿는 도 형사의간곡하고 열성잇는 설유 에드디어 회심하야 본인은당분 간남대문통일정목 호텔사정원백 종기(白鍾基)라는오빠에게인도 케되엿다

逃亡하던少女 永登浦署에被捉

【永登浦】불은도망하든씨ㅣ준이

全谷青年座談會

【全谷】기보한바와가티 전곡에 서도 시국에순응하야 위대한정 신의힘을 모아서 어떠한 경기 전이 계속된다할지라도 견인지 구의 총후와비진을 기코저 청 년단을 조직하여가지고 지난십 일일부터 매일 오후일곱시부터 동영시까지 일주일간 계속하야 청년단조직에 대한 취지와 목 적을 철저히 관철시키고저 청 년단회를 개최하엿든바 다음 파가튼 총후근로보국의 거대한 삼대목표를 세웟다

三大目標

一、公共的方面 二、生産的方面
三、修訓的方面

空席保證問題의 取扱方法도協議

仁川穀物協會役員會

【仁川】인천곡물협회(仁川穀物協會)에서는 지난십유일 오후네시부터 역원회를열고 십삼년도 결산과 십사년도 예산증인을하기 고 다시십칠일 오후세시부터 정기총회를 그협회 누상에서 개최하고 십사년도결산과 십사년 도 예산을 부의하엿스나 지난 번 조선미수송협회 지보와 절 충해오는 공석보증(空席保證)문 제에 대해서도 협의한결과 공 석보증에대한 수송협회 지부가 조선미수송협회와 조선미곡협회 사이의 계약이잇고 지부로서는 계약대로 실행할수박게 업다는 바 만약 실행이 곤난할때에는 협의선처할 태도를 가질것으로 결정하고 그취지를 협회측에로 지하엿스므로 곡물협회측으로서 는 이것을 어떠케하여야 공석 이 되지안홀가하는 취급방법에 대해서 협의한것으로서 협회의 이에대한것이 주목되고잇다한다

煙草商襲擊犯의 強盜共犯을檢擧

仁川署에서餘罪를追窮

【仁川】본적을 부천군부내면하리(富川郡富內面下里)에 두고주소부정인 전파이범 김복만(三一)은 울절도죄로 지난십사일 인천경찰서에서 검거수조하결과 의외에도작년팔월경부터 오전세시에인천영정(榮町)담배가게 김덕중(金德仲)씨집에 침입하야 현금 이십팔원을 강탈도주한 이명천(李命千)의 공범인것을 자백하엿다는데 동서에서는 여죄가더잇지나안흘가하고엄중취조중이라한다

開豐郡의大豆共販 初年부터大不振

原因은市勢高와滿洲豆大豊

【開城】개풍군농회(開豐郡農會)에서는 작년십이월부터 특히대두(大豆)공동판매망 확대비칠을세워가지고 개성토성(土城)려현(礪峴)등지에서 공판을 대대적으로 실시하려하엿스나 금년은 예상바게 매수자가 한사람도업서 큰낭패를보앗다고한다 이와가티 공판이 부진된 중요한원인은 금년만주에서 생산한대두가 도회지까지보내주고 한섬에 십팔원이면 매수할수잇는데 조선공판시세는 이십여원 이원씩 하니 첫째 비싸기을 살필요가 업다고 뾰이코트를 당하는때문이라한다 그러나중에도 더욱 개풍군 대두공판은 한차판(五百叺)이나 두차판이 하로에 모히지안어 현품을즉시 차출수업는데 대금은선불해야되므로 매수자는 가진불편과함께 큰손실을 보는때문에 매수치안는것이다 사환(釜山丸)에는 승객이 일백팔십명중 중화인(中華人)이 팔십팔명이나 입항하엿다한다

開豐郡棉作面積 千五百町步擴大

【開城】현하비상시국에 대처하야 군수품에 중요한자원의 하나로꼽는 면작(棉作)을 증산시킴에 잇서서 금년개풍군의 계획은 그리부면적을 작년배이상으로 확대하리라한다 즉 작년식부면적은 팔백육십여정보엿섯는데 금년은 일와 칠백정보를 확대시켜 일천오백정보를 면작지로 체뎌코 면화증산에 적극하여 지시키려한다 여기따라 군내의 다른정곡은 다대한 감수를 보게될것으로 예상된다

模範巡査를選拔

內地各都市施設見學

京畿道에서每年派遣키로

경기도경찰부에서는 때하에잇는 이십오개소 경찰서에서 모범순사 한명내지 두명식을선발하여 시국인식을 깁게하는동시에 선진도시의 경찰시설을 견학시키고저 내지로 파견하야시 키기로 결정하엿다 일정은 렬사흥이 안이며 곳은 이세(伊勢)대판(大阪)나량(奈良)동경(東京)일광(日光)등지라는데 동아내로 삼병(三班)경부보의인솔하에 떠나보내리라한다 그리고 아프로는 매년일월마다 계속이를 파견하리라고한다

仁川에船舶輻輳

歸還中國人도二百名

【仁川】신년드러서 인천항의입항선박이 날마다 증가한다함은 이미보도하얏거니와 지난십칠일 에 인천항에 드러온 내외선은 일이여척 외에 외향선이잇섯는데 그중에는 상해와 청도등으로부터 회항하는부

北京

北京前外珠市口
開明劇場
宋百憲

北京前外小李紗帽胡同十六號
精白米雜穀貿易委託御小賣
裕昌號
電話南局一七五三

北京東武門外騾馬市大街西柑胡同六號
合資會社 朝日テント公司
電話南局 二〇八八 九八〇番

石家莊常設家畜市場一同

北京東城新開路四十一號
共榮疊店
主 朴成淳
電東局三二七七

賀春

北京東城延壽庵七
崔元峻
電東局七六五

北京市前門外萬明路
東方ホテル
主 車應壁
電話南局 六〇五 二九九六 二一三七 四〇〇四

004144

中島時計店
主 李圭禹
本店 北京蘇州胡同 電東一三九六
支店 徐州大同街 電一六一番

京漢線石家莊新開街
金森大藥房
金允國
電話四〇番

北京前外西河沿
交通旅館
崔明道
電南一六八五

北京市前門外西河沿四五
振聲飯店
金良鐸
電話南局 二七〇七 二八四七 三一四四

近日開店
カフェー上海
北京東單二條胡同九
電話東局四一〇一號

北京前外板章路七
朝日旅館
主 白涉洛
電南局一一三九

北京前外萬佛寺灣內一號
新光商會
主任 安元廷
電話南局五〇七番

京漢線石家莊新開街三十八
樂善醫院
院長 李麟奎

北京驛前第一旅近旅館
京城旅館
北京西河沿八四
電南局八五六

協大運輸公司
主 申仁均
北京前外華嚴路甲十四號
電話南局一三六一

御料理
明月館
主 金潤連
電話東局七五七番

北京前外大吉巷三六
徐廷弼
電南一二三

東四北大街五三七
食道樂 東海莊
電東四五二〇

雪川

茂朱郡雪川面深谷里一區
有志 梁正煥

全北茂朱郡雪川面渭源里
泰盛金山事務所

茂朱郡雪川面深谷市易學校
金富根

茂朱郡雪川面九千洞
白蓮庵住持 金相玟

茂朱郡雪川面九千洞林道工事場
宋成大 安千玉 張河龍

茂朱郡雪川面二公里
崔在船

茂朱郡雪川面二公里
有志 李秀英

茂朱郡雪川面二公里
振興會長 申錫玖

有隣生命保險株式會社
大田出張所囑託員 尹聖用

茂朱郡雪川面深谷里一區
區長 權容植

茂朱郡雪川面斗吉里
振興會長 金永達

茂朱郡雪川面斗吉里
有志 嚴翼珣

富川

京仁線素砂驛前
內科 小兒科 外科
日新醫院
醫師 金重烈
電話一九番

株式會社
柳韓洋行
素砂工場

京仁線素砂
梧柳釀造場
主 李聖煥

青山

朝鮮釘鋲株式會社
素砂工場

京仁線素砂驛前
中央食堂
主 吳相根

株式會社
漢城銀行
素砂出張所

京仁線素砂面九老里
張最根

京仁線素砂
素砂精米所

東亞勸業株式會社
任梁成

武藏野久
神部正雄

素砂運送組合
理事 增野虎雄

素砂郵便所長
天野育四郎

京仁線素砂
丸合運送店
主 李敏乾

京畿道原蠶種製造所職員一同

素砂
十字醫院

富川郡西面吾亭里
孔英鎬

京仁線素砂
馬場精米所

京仁線素砂
元仁常精米所

京仁線素砂產業組合
理事 許達

西面吾亭里協議會員
朴敎寅

京仁線精米場前
勝利再來商店

青山公立尋常小學校職員一同

青一酒造合資會社職員一同

忠北青山市場
米穀雜貨販賣 青信商店
主 安白學

陳在春

米穀商 金萬奎

高靈

高靈郡邑內
慶尙自動車部從業員一同

高靈邑內
榮昌商會
朴榮甲

高靈穀物商組合

高靈邑內
鄭雲河

綢緞布木 高靈邑內星州通
申德雨商店

高靈邑內
中央旅館

高靈面職員一同

綢緞布木日用雜貨 高靈邑內星州通
金鍾九商店

穀物貿易 穀物精米 高靈邑內星州通
相信商店
金相奉

高靈郡玉山洞
鄭秀鉉

高靈邑內
料理 金台源

高靈邑內
雜貨商 泰昌堂
李東瀾

高靈邑內
仁壽堂藥房 吳龍岩

高靈面本館洞
李偉

高靈面本館洞
李泰桓

高靈郡邑內星州通 高靈鑛工所
郭壽岩

高靈郡邑內 和太商店
金永陶

高靈邑內
支那料理 德和館

高靈邑內 金星理髮館
張錫祚

高靈邑內 高靈邑內鑛商會
郭柄浩

高靈邑內
穀物商 曺相萬

高靈邑內
綢緞布木 東華商店
金鳳鶴

東亞日報社 青山支局長
金世元

高等理髮館
趙正福

忠北永同驛前青山市場
ライジングサン石油特約店
洪順化商店

米穀商 崔貞敎

金基喆

高靈

高靈郡尙洞面
宋戊坤

高靈邑內
綢緞布木 洪建七商店

高靈邑內
酒造株式會社

高靈面中化洞
須川九一

高靈面楊田洞
金乙龍

高靈面中化洞
李圭錫

星山面得成洞
吳載慶

高靈郡星山面得成洞
車熙默

高靈郡星山面
三橋貨物自動車部
金炳學
金又順泰

高靈郡
泰星山面職員一同

雙林面職員一同

雙林面栢山洞
雜貨商 朴日東

慶北高靈郡雙林面山塘洞
有名賣藥日用百貨 信聖堂

雙林面安林洞
白雲榮

高靈郡林東面月山洞
穀物商 兪昌穆

雙林面安林洞
白雲成

雙林面安林洞
精米業 金鍾淑

雙林面栢山洞
雜貨商 崔淳休

德谷面礼洞
醫生 吳光守

德谷面盤城洞
裵且乭

高靈郡德谷面禮洞
李炳權

德谷面職員一同

高靈郡雲水面花岩洞
穀物商 施炳夏

雲水面大坪洞
許成仁

雲水面
陳淳鶴

開津面職員一同

永登浦

永登浦驛前
京永古鐵商
徐永鎭
電話永登浦一六九番

永登浦驛前
山城屋洋靴店
金點壽

長篇小說

薄命 (185)

韓龍雲 作
鄭玄雄 畫

말로 九

이튼날은 순영이가 일찌기 가서 어제 섯든데가 섯다가 다른 사람들 보는데에 너무도점직해서 저쪽의 경편연습소(輕便練習所) 모퉁이로 가서 수건으로 얼골을 반이나 가리고 섯다

여덟시가 되면부터 아편생이가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형형색색 이엇다 의관을 그대로 하고 오는 사람도 잇섯지만 대부분은 거지 행색이오 얼골은 모두가 파리하고 누르비치 돌며 흑은 거름도 제대로 것지 못하는 혀편이며 거기에도 특색이 잇는것은 젊은 여자들이 엇다

『저런 망할것들이 웨 아편을 처먹기 시작하여서 저모양이 되엇담』

『저것들이 지금은 저래도 처음에 아편먹기 시작할때에는 도분이나 잇고 판게찬햇스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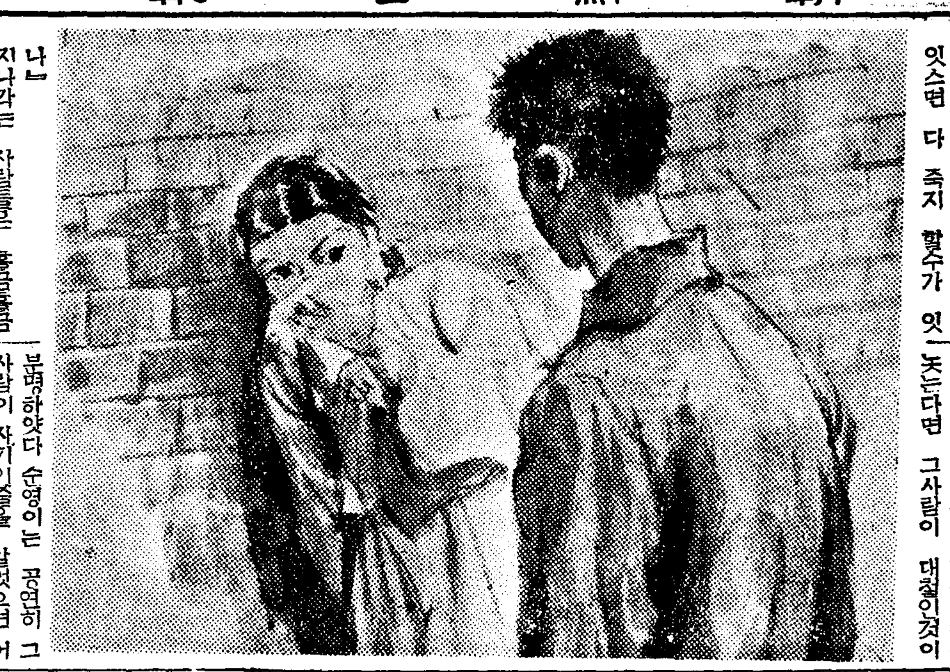
『저것들은 저러다가 며칠 안잇스면 다 죽지 할수가 잇나』

지나가는 사람들은 훌훌훌훌 보면서 서로 지꺼리는 사람들도 잇는중에

『저지경이 되엇서도 결심만잇스면 고치는수가 잇지마는 결심들이 잇서야지』

이러케 말하는 사람도 잇섯다

순영이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말이라도 아편쟁이게 편한말이면 귀너머 듯지 아니 하얏다 순영이는 대철이가 아편쟁이가 되어서 거기를 오지 아니하얏스면 하는 생각도 잇섯스나 하여간 한번 보앗스면 하고 기다려지는 마음이 아플 섯다 순영이 눈은 한군데에 머물러잇지 못하얏다 내자동 쪽에서 오는길을 보랴 중학동 쪽이나 광화문통 쪽을 보랴 때로는 고개를 돌려서 동십자각이나 서십자각 쪽을 보랴 순영이 눈은 여간 괴로하지 안하얏다 순영이가 중학동쪽을 보다가 마친 마차를 끌고가다가 뇌여서 뛰어가는 말을 구경하는라고 조금잇다가 눈을 돌려서 사직동 쪽을 보니 어느사이에 자기아페 바짝 가까이 와서 기침을 하면서 자기를 보는 사나이와 눈이 마주첫는데 그사람이 곳 전일에 자기집에 동냥왓든 그사람이엇다 순영이는 이때까지 기다리든 그사람이엇마는 눈이 마주치자 깜짝놀래어서 몽롱몽롱 찔하면서 거의 소리를 지를번 하얏다 그광경을 조금 유심히 보든 그사람은 홱 도라서서 다른사람들에게 섯끼어서 그집문으로 드러간다



순영이는 거기에 섯다가 그사람의 나오는것을 다시볼 생각도 업는것은 아니지만 어쩐지 더잇슬 용기가 업서서 조금 주저하다가 뒤도 도라보지 아니하고 도라와다 순영이는 이번에는 그사람의 얼골과 몸과 모습을 자세히 보앗다 그사람의 얼굴은 파리하고 누르비치 틔엇는 대철이엇다 의복 범절은 봉팁이가 말하든것과 가티 참혹하지는 안헛스나 보통사람의 차림이라고 볼수는 업섯고 자기집에 동냥 왓슬때에 보든 의복 보다는 나은듯 하얏다 그러하야 동냥다닐적에 입는 의복이 따로 잇나보다고 까지생각하얏다 순영이는 아직도 대철이가 그러케까지 되엿슬리가 잇나 하는 의심과 가튼 사람으로 하는 생각도 잇섯스나 그러한 억지로하는 생각을 째어놋는다면 그사람이 대철인것이 분명하얏다 순영이는 공연히 그 사람이 자기잇음을 알엇으면 어찌하나 하는 생각도 잇섯다 자기가 워낙 수건으로 얼골을 만히 가려서 다른 사람이 좀처럼 알어볼수가 업스리라고 생각하면서도 그사람이 자기를봇다가 갑자기 도라서서 가는것을 생각할때에는 자기인줄을 안듯도 하얏다 순영이는 수건으로 아까 그만한 정도로 얼굴을 가리고서 거울을 보앗스나 자기로서도 용이하게 알어볼수가 업서서 다소 안심을 하얏스나 다시 생각하면 그러케까지 다 심스럽게생각하는것이 도리어 우습기도하얏다

海外映畫情報

朗報 第三次解禁映畫 "말코·폴로의冒險"과 "마달른골목"等許可

작년십월부터 수입해금된 외국영화는이번 제삼차로 다수한 작품들이 허가되엿는데 그중 중요한것을 열기하면 다음과 갓다.

〔廿世紀폭스〕 작년도미국영화흥행의초기록이엿다는 음악영화 타이롱·파워、돈·아메치、아리스·페이주연의『世紀의樂團』 시몬느·시몽주연의『죠제트』『都會의人氣娘』등

〔메트로〕 월리알·포-엘과 마-나·로이 주연의『皇帝의寵臣』 로버-트·도나트와 로자린드·럿셀주연의『城砦』등

〔파라마운트〕 게리쿠-퍼주연의『七日間休暇』외삼편

〔유나이트〕『쿠-퍼』와『규-리』주연의『말코·폴로의冒險』피『실비아·시드니』주연의『데드·엔드』등

〔와-너〕『리트바-크』감독으로로만스는주연의『恐怖의크릿타-하우스博士』 이외에R·K·O유니버살콜롬비아에도 일이편식 새작품이허가되엿다

今週映畫 幸運의着陸 (原名 HAPPY LANDING) 若草劇場에서開封

피규어、스케-트선수로 유명한『소-냐、헤니-』의 제삼회 작품『행복의착륙』은 금십구일부터 시내약초극장(若草劇場)에서 상영한다 이영화는 노르웨-(諾威)의 적은마을에서 열리는 신부공진회로부터 시작하야 불시착륙한 비행사와의 연애를 싸고도는일종의찬란한레뷰-로써무대는파리、뉴-욕까지 전개되여나간다 주연으로는『소-냐·헤니-』외에『돈·아메치』『진·하-숀트』등이 공연하다 감독은『로이·델·루-스』 이와동시상영하는영화는『綠波의大久保彦左衛門』으로『노래하는희극』이다 동보(東寶)영화로서는 근래의 ……를 중심하야 가진노래와 희극이전개된다

(사진은『행복의착륙』의한장면)

라디오 프로

十九日 (木曜)

◇午前七時五〇分 皇居遙拜 (第一放送에依함)
◇同七時五一分 (東)라디오體操 (同)
◇同一〇時三〇分 氣象通報
◇正午 (東)時報 日用品時勢
◇午後零時五分 映畵主題歌 (레코-드)
◇同零時三〇分 뉴-스
◇同一時一五分 家庭時間『日本料理製法』(一) 梨花高女 李景祚
◇同四時 뉴-스 職業紹介
◇同六時 (平) 하-모니카와獨唱 一童謠組曲— 一、저녁바다 朴泰鉉曲 二、푸른하늘 李貞植編曲 三、故鄉生覺 朴泰鉉曲 四、허잘린잡새 李貞植編曲 五、새벽鍾 朴泰俊曲 六、새파란눈을가진人形 李貞植編曲 七、작난감汽車 李貞植編曲 하-모니카 李貞植 獨唱 金永淑
◇同六時二五分 어린이新聞
◇同六時三〇 復習時間『國語』(二) 市川榮三
◇同七時 뉴-스 天氣豫報
◇同七時三〇分 趣味講演『人生과年齡』 城大 金晉燮
◇同八時 伽倻琴 散調와倂唱 一、散調 가、진양조 나、중모리 다、자진모리 二、倂唱 가、短歌 楚漢歌 나、唱劇調 水宮歌 杖鼓 丁南希 林鍾成
◇同八時三〇分 라디오코메듸『울든너의幸福』 李達作
◇同八時五〇分 俗曲 一、平壤歌 二、山念佛 三、青春歌 四、夢金浦打鈴 五、오돌독 六、漢江水打鈴 短簫 崔壽成 細笛 李炳祐 奚琴 李忠善 李白姬 太乙民
◇同九時一五分 時調 一、平時調 二、지름 三、辭說時調 蔡圭應
◇同九時三〇分 뉴-스解說
◇同九時四〇分(東)時報 뉴-스 氣象通報 明日曆 翌日順序
◇同一〇時 地方으로보내는뉴-스
◇同一〇時一〇分 레코-드音樂

第一放送
◇午前七時一分 基礎英語講座
◇午前一一時 幼兒時間
◇午後零時一分 主祭賓祝 (察哈爾省)
◇同四時二〇分(東)相撲
◇同七時四〇分(東) 講演
◇同八時(東)文化講座
◇同八時二〇分(各面)僅餘
◇同九時(東)드라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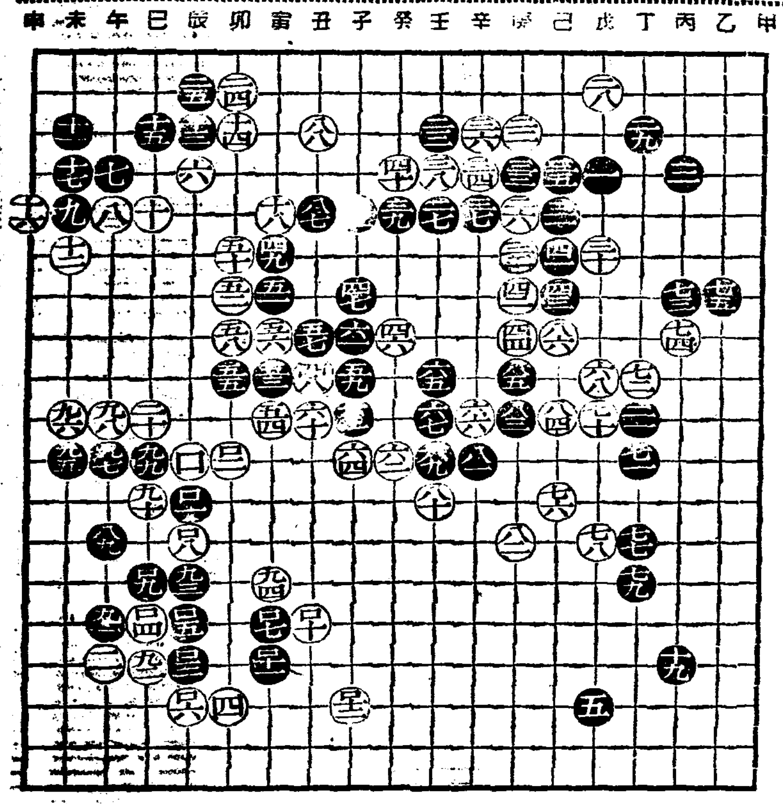
二十日 (金曜)

◇午前七時五〇分 皇居遙拜 (第一放送에依함)
◇同七時五一分(東)라디오體操 (同)
◇同一〇時三〇分 氣象通報 料理製法『獅子湯』 日用品時勢
◇正午(東) 時報
◇午後零時五分 (東)和洋合奏 一、靑猿 荒卷陣風作曲 二、[illegible]曲集 小畑錦浪作曲 江東管絃樂團 指揮 小畑錦浪
◇同零時三〇分 뉴-스
◇同一時一五分 家庭時間『日本料理製法』(二) 梨花高女 裵景祚
◇同四時 뉴-스 職業紹介
◇同六時 復習時間『算術』(三) 安興奎
◇同六時二五分 어린이新聞
◇同六時三〇分 라디오時局讀本
◇同七時 뉴-스 天氣豫報
◇同七時三〇分 時事解說 東亞日報 高永煥
◇同八時 (東) 管絃樂 交響曲 第四番D短調 슈-만作曲 第一樂章 漸漸緩徐로…活潑하게 第二樂章 로만체 第三樂章 스켈조 第四樂章 緩徐로…活潑하게 日本放送交響樂團 指揮 요-제프·로-젠슈토크 解說 牛山充
◇同八時四〇分 野談『天定奇緣』 庾秋岡
◇同九時一〇分 西道歌謠 一、寧邊歌 二、平壤念佛 三、자진念佛 四、긴아리 林明月 李忠善
◇同九時三〇分 뉴-스解說
◇同九時四〇分(東) 時報 뉴-스 氣象通報 明日曆 翌日順序
◇同一〇時 地方으로보내는뉴-스
◇同一〇時一〇分 初步國語講座(三) 宋今선

第一放送
◇午前七時一分 支那語講座
◇同一一時 小學生時間(第三)
◇午後零時五分(東) 和洋合奏
◇同二時 小學生時間(第六)
◇同四時三〇分 (東)大相撲
◇同七時四〇分 (自上海)
◇同八時(東) 管絃樂
◇同八時四〇分(東) 漫談
◇同九時一〇分(東) 時事解說

新春素人爭霸戰 —(6)—

白 李相基
黑先 柳東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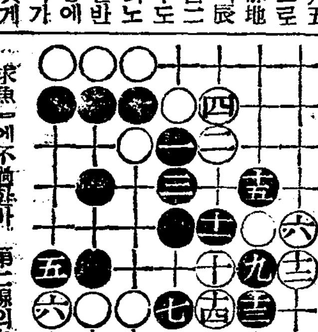
白百四는緣木求魚 黑은因其性跋扈

權秉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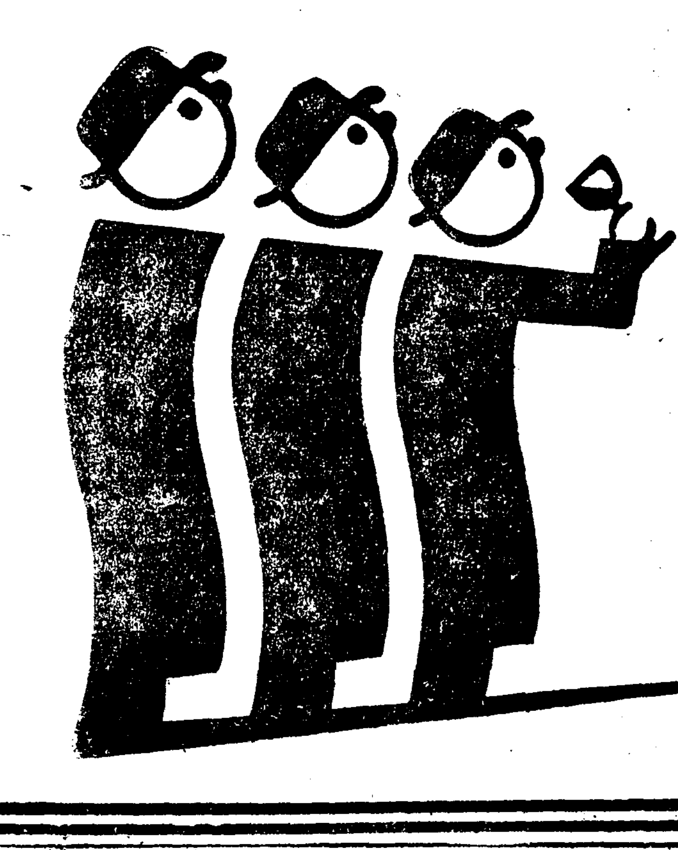
무릇바둑은 節、形、順、勢 이具備하여야 珍奇한 玉局이된다

黑九三은『Y型』작승이모양으로二間건너 辰의四에 巴置하니 白九四는 西、中의陣의優勢를 背景삼아 寅의四로飛闖한바 참이야말로 龍虎共鬪의風雲變化가 莫測한板局일까 辰은長、寅은凶、이란符合이다 黑九五로白百까지는 既定한鬪合으로 貫徹되엿스니 다시 數論할餘地가 적-다 黑白一은 毅然히辰의一二로 끄너노흐니 白百二는『아다리』로몰기가 너무도 아깝아서 卯의一二로 느려노앗스나 이를追想컨대 白은반다시 黑全軍을 鏖殺할野心에 지나지못한다 만약參考圖와가티 順序를따라온수히모라잇게하고 自陣外部를 堅固히하엿스면 勝算도 照然히判斷할可能性이 서울거시 第一線의 잘못理解이다 黑百三은 妙機를어더 白의第一線에 떠부처노흐면은 非常한意味가潛在한듯 黑의當分間形態로는 潤魚와가타야될수만잇스면大洋으로躍出할秘訣이리니果然辰의 一六이『龍首』으로游泳한바가되엿다 白百四는不察時宜하고 巳의一五로도러가니이는比하건대『緣木求魚』에不適한바 第二線의失策한印象이다 黑百五는辰의一五로友軍과連絡하니이른바『其子乘舟에蕩漾中流』로다 白百六은 辰의一七로圍着하니 이는晩時之歎이不無하다 黑百七은果然 跋扈하야 寅의一五로 一間跳立하니 白百八이先手로 黑一兵을捕虜하고 또는追擊이 甚急한바에는 아주조흔手로歟認한다 黑百九는어피어차 巳의一四로잇고야마러 이條綜가 錯亂한細局에 若此하면 刹那의光景이演出되겟스니 注意를 加하기바란다 白百一〇은丑의一五로 倚角勢를取하니 黑百一一은 辰의一七로목을바다陷穽을글엇스니 妙哉妙哉 저그러나 成功이잘될지 喊聲을기다려보자—— 이局을黑論으로본한다면 白의用兵術이너무過度하야 바람을잡고구름을헤처別神奇한手를 다하여보앗스나 黑은 그反響으로또하야살기만 하여도 도로혀有利할는지알수 업서?

(參考圖)



●九三	辰의十四
○九四	寅의十四
●九五	未의十一
○九六	未의十一
●九七	午의十一
○九八	午의十一
●九九	巳의十一
○百	辰의十二
●百一	辰의十二
○百二	卯의十一
●百三	辰의十六
○百四	辰의十五
●百五	巳의十五
○百六	辰의十五
●百七	寅의十五
○百八	辰의十三
●百九	巳의十四
○百一〇	丑의十五
●百一一	寅의十六
○百一二	子의十七



新劇界의金字塔
金振門……作
19日부터 園成社에서
喜歌劇 그리운江南 全篇

崔仙 吉夢波 李南順 崔椿 李悌洪 朴美德 金志媛 李芳園 劉良順
歌手陣 李悌洪 金華榮 李光春 權五燮 朴美德 吉馨波 李泰亨 朴聰彬 申錫祚 白淸龍 任楊一 金判山 鄭相玉
밴드 K H
韓貞姬 李南順 金志媛 張京汝 柳春玉 劉良順 李淑英 金椿姬 劉京順 李鳳愛 金芳草 朴仁順 黃銀順 崔仙
女子部 (가나다)
金振門 李青山 金鐵山 趙己石 朴仁鳳 李鎭榮 金雲燮 趙後童 朴聰彬 李和 石臥拂
陣容無敵
主幹……金斗鎭
マネヂヤ……金主傳

娛樂의王者……金姬座……アトラクション豪華版
金姬座一大公演

粉白粉に (가루백분에) つきもの…… (으레따르는) こぼれる心配 (쏘다질염려) お膝を汚す…… (무릅을더러피는) その不愉快を (그런불유쾌를) 解消して…… (해소하야)

ハンドバックの中でも (핸드빽속에서도) こぼれる心配なく (쏘다질염려업고) 今迄のコナ白粉の (종래의가루백분의) 使用感を方点に (사용감을만점으로) 進め、携帶至便に (진보시켜휴대지편케) 改善されたのが (개선한것이) 固形タンゴの特長です (고형당고의특장입니다)

곱게 말숙하게발라지는極微粒子潑剌한色味와 산뜻한香氣! 얼골色에 따라 一層아름답게되는 七色이合 비로-드파호付各色四〇錢·七〇錢

固形 タンゴドーラン (고형 탕고도-랑)

國色メール本舖·株式會社·宇野達之助商會·東京·大阪

近代人の志らが 赤毛染

專賣特許
粉末單一品·물에 녹여서 곳 드려지는
帝國醫大 無毒證明
의理想的白毛染
ナゴン 納言

[illegible]

●絕對로視力이 衰하지안습니다
●心臟과腎臟이 弱하지안습니다
●血壓이놉지안습니다
●어깨와목이 결리지안습니다

大阪市東區南久寶寺町三·宇野達之助商會藥品部·定價四〇錢·六〇錢·海外郵送料加算
全國一流藥店에잇소品切時는直接發賣元에注文하시요·振替大阪三五一五九番

百日咳에 コデス
博士推獎 品質本位
定價二十錢부터 各地藥店販賣中

모루히네 其他塩類中毒에
福 モナール (모나-루)

우리가 萬一不幸해서 한번治療를 그릇치고『慢性모루히네中毒症』으로 移行하야『모히』會徐困難으로辛苦하는분은 即時『福모나-루』療法에依하야『모히』를 除去하고 一般症狀을 治癒케하며 迅速히 健康體로 復歸케되므로 安心하고 適用하심을 切望함

適應症 モルヒネ、ヘロイン、阿片 パントポン、コカイン等 其他同類似麻醉藥中毒症

製造元 順天堂醫化學研究所 (文獻進呈)
發賣元 田邊五兵衛商店 大阪市東區道修町

蜂ブドー酒 (하찌포도)
美味滋養·補血强壯

防寒工作에는 厚着보다먼저 蜂을一杯……! 마시면참으로 마뜻해져서기 운찬힘이湧出한다…!

14-5

美活石鹸 (미활비누)